

오피니언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한수산



이제 몇 번의 봄비가 내리고 나면 이 겨울도 사라져갈 것이다. 눈 많았던 겨울, 혹독하게 추웠던 겨울, 지난해 11월 말 안동 폐지능가의 구제역 의심신고 이후 삼백 몇십만 마리가 넘는 가죽이 살처분되는 상처를 남기고 이 구제역의 겨울이 사라지고 있다. 그러나 겨울이 사라진다고 끝난 것은 아니다. 여전히 구제역의 여파는 침출수 오염 같은 우려를 미완의 숙제로 남겨놓고 있다.

가죽 삼백 몇십만 마리를 경부고속도로에 늘어 세우면 그 길이 얼마나 될까. 나로서는 도대체 가늘이 안 되는 숫자의 가죽이 죽어나갔다. 어떻게 해서 그토록 많은 소·돼지가 죽어야 했던가. 아직 아래에 한글에서 표준어 취급도 받지 못하는 '살처분'이라는 용어를 '죽여 없애다'로 말을 바꾸어 표현하자면 이렇다.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되자 발생농가 반경 3km 이내에 있는 가축을 양성판정을 받기도 전에 예방한다는 명분으로 땅에 파묻는 방식으로 미리 죽여 나갔다. 이러한 짜증이 문제가 되자 이번에는 반경 500m 이내의 가축만 죽여 없애는 것으로

완화했다가, 지난해 12월 25일부터 발생농가의 가축만 죽여 없애도록 했던 것이다. 그렇게 해서 지난 석 달 동안 340여만 마리의 멀쩡한 가축을 병에 걸릴까 봄, 병에 걸리기도 전에 땅에 묻었다.

이라더 보니 남한강 지류의 매물지에서

돼지 사체와 함께 침출수가 흘러나오기에

그래도 봄은 온다

이른 것이다. 그리고, 참혹한 살처분의 공포와 절망만으로도 모자라 이제 우리는 가족의 사체에서 흘러나온 침출수로 인한 토양과 지하수의 오염을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되자 발생농가 반경 3km 이내에 있는 가축을 양성판정을 받기도 전에 예방한다는 명분으로 땅에 파묻는 방식으로 미리 죽여 나갔다. 이러한 짜증이 문제가 되자 이번에는 반경 500m 이내의 가축만 죽여 없애는 것으로

'수도꼭지를 틀었더니 끼지 끗들이 나왔다'는 따위의 사이버공간에서 나온 구제역 사태 관련 유언비어의 작태는 이 절망의 하이라이트에 가깝다. 그러나 그것 만이 아니다. 기르던 가축을 살처분을 해야 했던 농민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함께 한다는 마음은 찾을 길이 없이, 사료값이나 겨울철 낭비 걱정 없이 한꺼번에 죽이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서 농민들이 살처분에 기꺼이 응했다거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해 정부가 고의로 구제역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말까지 우리 사회에 떠돌았기에 하는 말이다.

내 작업실이 있는 경기도 양평군 개군

서 있기까지 하다. 그래서 봄이면 산수유꽃이 노랗게 흐드러진 속에 한우 굽는 냄새를 풍기며 봄축제가 열렸다.

이 봄, 구제역의 재앙을 만난 개군에서 개군한우와 산수유 축제가 열린다는 소식은 감감하다. 그리고 같은 마을에서 절망과 희망을 함께 만난다.

마을의 한 해장국집이 '구제역 발생으로 인하여'면서 밭 빠르게 음식값을 1천 원이나 올렸다. 애속하지만, 내 음식값 내가 올린다는 주인에게 할 말이 없다. 그런 속에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현수막 하나가 나붙었다. '구제역 극복! 양평군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이 현수막은 인근 제20기계화보병사단 장병들이 양평의 한우단지 개군 입구에 내건 현수막이다. 이 현수막에는 우리가 있다. '나'만 있지 않고 '우리'가 있다. 그렇기에 이 현수막은 희망이 되고 믿음이 된다.

모든 개념에는 안팎이, 긍정과 부정이 있다. 지난 겨울, 자신이 기르던 가축이 기에 그 가축을 죽일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와 함께 우리에게는 가축을 살려내야 할 의무도 있었다. 가축을 기를 권리가 인간에게 있다면 그들을 빛나는 생명으로 존중해야 할 의무도 인간에게는 있다.

〈작가·세종대 국문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료 칼럼

문형철



많은 사람들이 아파서 한방치료를 하기 위해 한방병원을 찾는다. 아픈 이를에게 한방병원의 역할은 무엇일까? 우리는 환자들에게 무엇을 제공해야 하는 것일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수일 전 청단한 방병원 직원들과 함께 직원중심경영 세미나를 가진 적이 있다.

직원 대부분의 의문은 하나로 모아졌다. 새로운 환자들은 끊임없이 병원을 찾고 있는데, 실상 병원에는 환자가 없다. 병원은 왜 망하는가?

시내는 변화한다. 서비스 중심, 고객 중심의 경영 시대를 넘어서 '직원중심 경

면 우르르 몰려다닐 것이 아니라 프로 죽기처럼 전략을 가지고 모든 팀원이 움직이되 효율적으로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하지 않겠는가? 환자의 치유를 책임지기 위해서 병원의 환경을 조개고 분석하고 평가해서 끊임없이 개선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환자는 진정으로 만족하고 자신의 치유에 몰입할 수 있는 것이다.

병원에서 직원과 환자들의 불만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그것이 QCS(quality care service)다. 매일 QCS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병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완벽

기고

최경환



17대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지난 2007년 11월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문화창작인들이 모여 김대중 대통령을 조청했다. '잃어버린 50년, 되찾은 10년, 고마워요 DJ'라는 부제가 달린 행사였다. 당시 한나라당과 보수 진영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비난하며 자신들이 집권해야 한다고 캠페인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MB가 집권하면) 잘못하면 전쟁의 길로까지 끌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한나라당과 보수 언론은 전직 대통령이 전쟁을 선동한다고 김대통령을 공격했다.

갖고, 나라를 전쟁으로까지 몰고 왔다. 임기 2년여를 남겨둔 MB는 확신에 차 있다. 4대 강, 남북문제 등 자신의 생각과 통치방식에 확신이 가득하다. 하지만 독선이다. 장로 대통령의 종교적 신념과도 연결되어 국정운영이 위태롭고 국민은 불안하다. MB에게 민주주의나 남북의 화해협력을 말하는 것은 '쇠귀에 경읽기'다.

양심 있는 인사들은 이제 말하기에 지쳐가고 있다. 아무리 중고하고 말해도 듣지 않으니 어찌겠는가 하는 심사이다. 대안세력이 되어야 할 애당은 사분오열 돼 있고, 인물과 비전에서 취약

'독재'와 '전쟁'의 길 막을 수 있을까

2009년 6월 9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의 생애 마지막 연설. 김 대통령은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죽었는가. 광주에서 서, 인혁당 사건 등으로 많은 이가 죽었다. 우리는 과거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세 독재정권을 국민의 힘으로 극복했다. 우리 국민은 독재자나 나왔을 때 반드시 이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역시 한나라당과 보수 언론은 전직 대통령이 '독재' 운운한다며 격분했다.

우리는 '독재'와 '전쟁'의 길을 막을 수 있을까. 항상 그랬듯이 결국 믿는 것은 국민뿐이다. MB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푸념과 냉소가 민주주의를 지키고 전쟁을 막아보자는 국민적 열망으로 바뀔 때, 그렇게 해서 투표장으로 집결할 때 가능하다. 지난 1997년의 정권교체가 그랬고, 2002년의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도 그랬다.

김 대통령은 2009년 6월 생애 마지막 연설에서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며 국민을 향해 '다시 일어설 것'을 또한 주문했다. 과연 우리 국민은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준비가 돼 있는가?

하다. 과거 군사독재시절처럼 거리에서 외치는 짚은이들도, 강단에서 정의와 진리를 외치는 교수들도, 민초들의 아픔을 노래하는 시인도 보이지 않는다. 여당은 또 언론권력과 지역정서에 기대어 기득권 수호와 반복(反北) 적대심리에 호소할 것이다.

우리는 '독재'와 '전쟁'의 길을 막을 수 있을까. 항상 그랬듯이 결국 믿는 것은 국민뿐이다. MB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푸념과 냉소가 민주주의를 지키고 전쟁을 막아보자는 국민적 열망으로 바뀔 때 가능하다. 지난 1997년의 정권교체가 그랬고, 2002년의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도 그랬다.

김 대통령은 2009년 6월 생애 마지막 연설에서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며 국민을 향해 '다시 일어설 것'을 또한 주문했다. 과연 우리 국민은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준비가 돼 있는가?

〈김대중평화센터 공보실장〉

청소년 불법 대출 피해 사례 많아 단속 규정 시급

요즘 인터넷상에서 청소년들을 꼬드겨 불법 대출을 해주는 사례가 기습을 부리고 있다. 그 수법도 참 교묘하다. 예를 들어 '1분내 휴대전화 소액대출'이란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본 학생들이 업체에 연락해 8만원을 휴대전화로 소액 결제하면 4~5만원 가량을 통장으로 받게 된다.

이것이 소위 '휴대전화 소액결제 광'이다. 특정 물품을 구입해 휴대전화로 결제하고 물품대신 일정금액의 현금을 입금해 준다. 대출업체들은 구입한 아이템 등을 아이템거래 사이트에 되팔아 현금화한다. 수수

료가 40%에 달하지만 돈을 쉽게 빌릴 수 있다는 이유로 청소년들이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것이다.

정작 문제가 되는 이유는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휴대전화 번호와 명의자의 개인정보만 알고 있다면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부모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보면 자연스레 부모의 주민번호를 알게 되는 시스템상 사실 이런 피해를 막기가 어렵다.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사전에 교육해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전혜숙·광주시 동구 서석동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저작권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시설

호남고속철 저속철化라니 제정신 인가

호남고속철도의 광주 송정역-목포 임성역 구간 KTX가 '저속철'이 될 전망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이 구간 노선으로 고속철을 신설하지 않고 기존 철도만 활용하는 안을 응용 보고서의 최종안으로 선정한 것이다.

이같은 최종 노선안은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국토해양부가 고시해 최종 결정된다. 하지만, "2차례나 전문가들의 응답을 거쳐 나온 결론인 만큼 노선을 변경할 수는 없다"는 국토해양부 관계자의 말로 미루어 이 안은 이미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철도시설공단의 최종안에 대해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경부고속철은 전 노선을 고속철로 하면서 유독 호남고속철만 저속철로 한다는 발상은 호남 차별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과 전남도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말도 안 되는 호남고속철의 저속철화 시도를 분쇄해야 한다. 지역민도 이 같은 치욕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흉물로 방치된 치안센터 활용 방안 찾아야

대민 치안시스템이 '지구대+치안센터'에서 파출소 중심으로 바뀌면서 광주시내 치안센터의 상당수가 방치돼 도심 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공공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관내 치안센터 21곳 가운데 6곳만이 파출소로 전환돼 운영 중이며, 나머지 15곳은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치안센터는 교통·방법조소로 사용하거나 경찰 접기 또는 비품 보관 창고로 쓰는 등 국가 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한 일부 치안센터는 우편지역으로 전락해 범죄 발생 우려마저 놓고 있다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본보 취재 결과, 북구 신안동 치안센터 주변에는 빈병과 과자·음료수 봉지, 담배꽁초 등 각종 쓰레기가 수북이 쌓여 있다고 한다. 또 서구 화정2동 치안센터도 출입문이 닫혀있지만, 건물 외벽은 찌든 때로 겹게 변하고 주변에는

노상 방뇨로 인해 오풀 냄새가 나는 등도 심 속 흉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치안센터를 매각을 하더라도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팔 수 없는 형편이라고 말하지만 행정기관의 지원 여하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지역주민을 위한 도서관이나 놀이공간, 사회복지시설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광주시나 구청과 협의해 예산 지원 및 활용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이다. 고급인력의 의무 경찰을 통해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공부방을 운영할 경우 경찰에 친근감을 심어 줄 수도 있는 것이다. 일부 군부대에서 공부방을 운영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게 좋은 보보기다.

경찰은 폐쇄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방치된 치안센터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광주시와 구청도 방관해선 안 될 것이다. 방법의 일선인 치안센터가 흉물로 방치되고, 우범지대로 전락해서야 되겠는가.

無等鼓

지난 7일 오후 1시30분 현빈은 경북 포항시 해병대 훈련교육단에서 수많은 팬들의 아쉬움과 열렬한 박수를 받으며 입소했다.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 종암지방법원 519호 법정. 범역기피 의혹을 받고 있는 MC몽이 5차 공판을 받기 위해 법원을 찾았다. 지난달 21일 열릴 계획이었던 공판이 당시 증인들이 여려 사유로 불참하면서 연기 돼 있다.

열띤 환호와 박수 갈채를 받으며 해병대에 입대한 현빈과 병역기피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지리한 법정 공방 중인 MC몽의 모습은 범역을 둘러싼 연예인의 양극단의 모습이다. 그동안 고위공무원, 국회의원, 재벌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과 더불어 연예인들도 불법을 동원해 병역을 기피하는 집단으로 인식돼온 사례이다.

때문에 연예인들의 병역문제에 대한 대중의 시선은 굽지 않았고 병역비리 연예인에 대한 비판은 상상 초월했다. 유승준이 아직까지 국내무대에 발

을 연기한 뒤 치아문제로 군 면제를 받은 것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법정에서 게 된 MC몽에 쏟아지는 비난이나 인기 절정의 상황에서 힘들고 어렵다고 알려진 해병대를 자원 입대한 현빈에 대한 찬사는 우리 사회의 병역에 대한 일그러진 자화상이다.

/최재호 경경부 차장 lion@kwangju.co.kr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创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		